

IT·자율車 시너지 뽐내러... 하만 대표 CES 깜짝 등장

5G-레디 TCU·디지털 콕핏 공개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라인'
센서·부품·소프트웨어 등 선택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8'에서 하만의 협업 작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CES 2018에서 하만과 공동 개발한 '5G-레디 TCU(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를 비롯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라인(DRVLINE)' 등을 선보이며, 하만의 협업 시너지를 본격화 했다.

삼성전자는 CES 2018 개막에 전날인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래 비전과 2018년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하만 대표이사인 디네시 팔리월이 깜짝 등장했다. 그가 삼성전자의 프레스 콘퍼런스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디네시 팔리월 하만 대표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 하만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5G-레디 TCU, 디지털 콕핏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것으로 풀이된다.

디네시 팔리월 대표는 "삼성전자와 하만의 최고 역량이 모여져 소비자들은 집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지능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전장 업계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업계를 주

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5G-레디 TCU를 공개했다. TCU는 자동차를 통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된 핵심 장치를 말한다.

팔리월 대표는 "TCU에 5G가 적용되면 도로·차량·행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운행을 돕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업계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첨단 IT 기술과 하만의 전장 기술이 집결된 '디지털 콕핏'도 선보였다. 디지털 콕핏은 하만이 글로벌 완성차기업에 공급해오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전자의 인터페이스 등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 '빅스비'의 차량용 버전과 사물인터넷 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앱이 더해졌다.

또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량에서 음성 명령으로 에어컨과 오디오, 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집안의 사물인터넷 가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팔리월 하만 대표는 "삼성전자와 하만의 최고 역량이 모여 소비자들은 집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지능화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만의 CES 2018 전시장에서는 신개념 자율주행 솔루션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이 공개됐다. 드라이브라인 플랫폼은 자동차 업체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각자에 맞춰 자율주행에 중요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센서와 부품, 소프트웨어를 선택해 자동차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확장성을 지닌 모듈화된 자율주행 솔루션이다.

개방성과 확장성을 강점으로 하는 드라이브라인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AI(인공지능)·알고리즘 등의 기술과 부품이 적용됐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기준 레벨 1에서 5가지의 단계 중 레벨 3에서 5가지의 자율주행 수준을 구현할 수도 있다.

드라이브라인에는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개발한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전방카메라시스템을 적용해 차선기탈경고, 전방충돌경고, 보행자감지, 긴급자동차동과 같이 향후 적용될 미국의 신차평가프로그램 기준들을 충족시킨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코웨이, 똑똑한 '의류 솔루션' 공개

CES서 AI 공기청정기도 선배
애플·아마존 등과 협업도 강화

코웨이가 오는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8 CES'에 의류청정기 등 의류 토털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에 들어갔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애플과 협업을 강화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소비자들을 손짓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답리닝 기술이 탑재된 '액티브 액션 공기청정기'에다, 사물인터넷(IoT)과 매트릭스가 만난 '스마트 베드 시스템'도 함께 출시해 방문객들로부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코웨이의 CES 참가는 올해가 세번째다.

코웨이는 에어 케어 기술력과 의류 관리기를 융합한 신개념 의류청정기인 '코웨이 FWSS(Fresh Wear Styling System)'를 CES에서 처음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코웨이 FWSS는 양복, 코트, 니트 등 매년 세탁하기 어려운 옷감의 의류를 ▲의류 집중 케어 ▲의류 공간 케어 기능으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일반 의류 관리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의류 공간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품 하단에 공기청정기를 탑재해 드레스 룸과 같은 의류를 보관하는 주변 공간까지 공기청정 및 제습 기능을 제공해 모든 옷을 365일 언제나 쾌적하

게 관리해준다. FWSS에 탑재된 공기청정필터는 의류 관리에 최적화된 4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프리필터, 맞춤형 필터, 탈취필터, 해파필터로 구성된다.

코웨이는 지난해 아마존의 AI 음성 인식 플랫폼인 알렉사를 활용한 북미향 공기청정기 '에어메가'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도 아마존의 IoT 기반 주문서비스인 'DRS(Dash Replenishment Service)'를 접목한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공개했다.

애플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애플 스마트 플랫폼인 홈킷을 연동한 공기청정기 '코웨이 타워'도 CES에 내놨다. 이 제품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자가 앱이나 아이폰 시리를 통해 공기청정기를 조작할 수 있다. 코웨이 타워는 이달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CES에서 추가로 내놓은 '코웨이 스마트 베드 시스템'은 사용자의 수면 패턴, 주변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컨트롤해주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는 "CES에 3년 연속 참가해 고객들이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제품에 기술력과 혁신을 담아 삶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토털 라이프 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객 케어 역량 강화로 웰빙 가전의 미래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모델들이 CES에서 최초 선보이는 '코웨이 의류청정기 FWSS(Fresh Wear Styling System)'를 소개하고 있다. /코웨이

"지능화 된 IoT... 앱 하나로 모든 기기 제어"

삼성, CES서 미래비전 소개
370여개 기기와 '스마트 싱스'

"삼성전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히 기기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김현석 CE(소비자가전)부문장 사장은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 개막에 앞서 프레스 콘퍼런스 갖고, 이 같이 미래 비전과 2018년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다가올 사회의 핵심 트렌드를 '인공지능에 기반한 연결성'으로 정의하고, 삼성이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Home)-비즈니스(Business)-모빌리티(Mobility)라는 3가지 상황별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삼성이 만들어 나갈 서비스를 위해 40여개의 파트너사 370여개의 기기가 연결돼 있는 '스마트싱스'를 중심으로 전사적인 IoT 플랫폼 연동 작업을 진행했다"며, 3가지 주요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클라우드의 통합'으로 일상생활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장 김현석 사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 개막에 앞서 미래 비전과 2018년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기기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Intelligence of Things'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에 필요한 다양한 제 3자 기기와 서비스를 스마트싱스와 연동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삼성 커넥트, 아틱을 스마트싱스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하만의 전장용 플랫폼인 이그나이트까지 연동해 집 안의 가전제품에서 차 안의 오디오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그러나 연동 방법이 복잡하거나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로 소비자가 사용상 어

려움을 겪지 않도록 앱의 통합으로 기기간 연결성이 확보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서비스는 AI 비서인 빅스비가 전면에 나서 수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자사의 전체 스마트기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는 목표다. 또한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TV와 가전제품에도 기기별로 최적화된 보안의 녹스 기술을 적용해 안전한 IoT 환경 구현에 나선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SK텔레콤 직원이 5G 자율주행 콕핏 운전석에 앉아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체험하고 있다. /SK텔레콤

SKT-기아車, 5G 자율주행기술 선택

SK텔레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8'에서 기아자동차와 5G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기아자동차는 기술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체험 시나리오 ▲한국-미국 간 5G 망 활용한 실시간 영상 전송 시연 ▲5G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

(V2X) 기술 등을 전시한다.

우선 양사는 관람객들이 차량 내에서 업무를 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미래 자율주행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5G 자율주행차 콘셉트의 콕핏을 설치했다. 콕핏은 관람객이 자동차 운전석의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모형이다. 관람객들은 운전석에 앉아 자율주행 차량의 인터페이스와 콘텐트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또, 양사는 콕핏에 앉은 관람객들이 서울 시내 5G 커넥티드카에서 촬영한 360도 영상을 'CES 2018'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 전송을 시연한다. 관람객들은 마치 서울 시내를 자율주행차로 여행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서울 을지로 5G 시험망을 해저 케이블로 확장해 한-미간 5G 전용 시험망을 구축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